

윌라 캐서의 작품에 나타나는 문화 전경

신 명 섭*

차 례

1. 서론
2. 윌라 캐서(1873-1947)의 문학, 지리-문학의 관계
3. Cather작품 속의 경관
4. 땅의 의미

1. 서론

지리학을 대별하면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특히 문화 지리 분야에서 즐겨 다루는 주제가 자연 전경(landscape)이다. 예컨대 미국 인문지리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소어(Carl O. Sauer)는 1925년에 벌써 「자연 전경의 형태론」(“The Morphology of Landscape”)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신선한 내용과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소어는 그 때만해도 기세가 높던 환경결정론에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후학들에게는 지리적 현상에는 필히 자연적인 것(physical)과 문화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전경 및 지역(area/region)에 담긴 여러 가지 사실을 연계적으로 탐구하라고 당부하였다 (Sauer in Dohrs and Sommers, 1967, 91). 소어의 뒤를 이은 학자들은 그의 뜻을 받들어 『인간 지리학의 발전』(Progress in Human Geography), 『자연 전경』(Landscape) 등의 저널을 발간하고 이어서 『정신의 지리학』(Geographies of the Mind, Lowenthal and Bowden, eds., 1976)라든가 『일반 자연전경의 해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지역학전공 교수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Meinig, ed., 1979), 『인류 지리학』 (*Humanistic Geography: Prospects and Problems*, Ley and Samuels, eds., 1978) 등의 단행본들을 줄줄이 펴냄으로써 환영할만한 脫과학만능주의적이면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문화경관이나 문학/예술 등의 소재를 다루는 많은 연구논문들이 빛을 보고 인문/문화지리의 입지를 다지고 발전시키는 일에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인본주의적 노선을 고수/고취시켜 행동학과계통의 동료들이 과도하게 통계중심 쪽으로 기우러지는 경향을 은근히 나무라면서, 과거 30여 년 동안 인문지리학분야에 있어서 인본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숭한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설파해온 투안(Yi-Fu Tuan) 교수의 견해는 오늘 우리 주제에 적합한 무게를 실어준다고 하겠다. 그는 주위의 많은 지리학자들이 지리학과 문학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리학적인 글은 문학적인 질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문학은 인간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야를 제공해준다는 의미에서 지리학도들 연구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Ley and Samuels, 1978, p. 194, "Literature and Geography: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Research": 이은숙, 1992).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도 이러한 개념적 맥락에서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을 살고 간 미국의 여류작가 윌라 캐서(Willa Cather)의 대표작에 초점을 맞춰 고찰해보자 한다. 글을 뒷받침 해주는 주요 개념으로서는 대지(land), 풍경(landscape), 공간감각(sense of place), 지방색(local color/colorism), 초원(prairie), 대평원(Great Plains) 등이 있다.

2. 윌라 캐서(1873-1947)의 문학, 지리-문학의 관계

19-20세기 미국문학에서 소위 지방색(local colorism)이라고 일컫는 흥미로운 장르를 대표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윌라 캐서는 1873년 겨울 백 크릭 밸리(Back Creek Valley)라는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의 시골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중후한 인물의 소유자로 법학을 공부해서 이웃사람들을 잘 도와주었고 딸에게는 애정 깊은 아빠였다. 한편 교사 출신인 어머니는 다소 엄격

한 사람으로 가내의 질서를 잡는 편이었으나 에들한테는 스스로 흥미와 재능을 개발하도록 자유를 주었다 (Wooten, 1998).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윌라는 고등학교 때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우고, 9살 적에 부모를 따라 이주해간 네브라스카(Nebraska)에서는 대학생 시절에 문예지 『링컨 주 저널』(Lincoln State Journal)의 편집을 맡아 글도 기고했다 (Foerster/Falk, 1960, p. 1018). 캐서의 문학적 소질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졸업(1895)후 일년 동안은 제2의 고향이 된 소읍 레드 클라우드(Red Cloud)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는 보다 넓은 인생경험을 하고픈 욕망에 멀리 떨어진 펜실바니아주의 대도시 피츠버그(Pittsburg)로 가서 데일리 리더(Daily Leader)라는 잡지사 편집부에 들어가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오페라, 콘서트, 연극 등을 관람하며 도시생활을 향유했다. 그렇게 언론계에 5년 간 종사, 그리고 고교선생으로 또 5년 동한 일 했다. 그사이 유럽에 가서 한 여름을 보내고 돌아와서는 시집 한 권과 단편 모음집을 냈다. 이렇게 뜻내기 문필가로 발돋움하게 된 캐서는 총 10년간의 피츠버그 생활을 뒤로하고 뉴욕으로 가서 (1906) 보다 무게 있는 대중지인 맥클루어 사(McClure's Magazine) 편집부원으로 채용된다. 그 자리에서 곧 실력을 인정받은 캐서는 주간(managing editor)으로 승진되어 4년(1908-12)동안 잡지사 일을 계속한다.

이 때 나이 39세, 캐서는 창작에 전념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계속 뉴욕에 근거지를 두고 휴가 때마다 소녀시절을 보낸 네브라스카의 대초원으로 돌아간다. 미국의 지리적인 중심부 大平原지역(Great Plains)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있는 드넓은 네브라스카는 캐서에게 진정한 마음의 고향이었다. 출생지인 버지니아주 백 크릭 밸리의 탁 트인 전원적인 공간도 그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지만, 규모로 보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네브라스카 초원의 푸른 하늘과 끝없는 공간은 평생동안 못 잊을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래서 캐서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외친다: “탁 트인 평원을 보면 내 숨소리가 달라진다. 저 드넓은 공간들, 바다처럼 구비치는 열린 땅을 사랑하는 마음 --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열정이다” (“When I strike the open plains, I breathe differently. That love of great spaces, of rolling open country like the sea -- it's the

grand passion of my life” in Foerster/Falk, *ibid.*).

다시 음미해보면 이 말은 -- 특히 “open plains”나 “great spaces”, “rolling open country like the sea”등의 문구는 -- 지리학적인 편견을 지닌 필자와 같은 사람에게서는 가슴 설레는 표현이며 지방색의 본질, 그리고 나아가 윌라 캐서 작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직관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의미 깊은 단서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산천초목, 평원, 땅, 바다, 공간” 등등 -- 이러한 어휘는 지리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landscape’, 직역하면 “땅의 모습”을 뜻하는 낱말의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포어스터(Foerster/Falk, p. 1017)의 평을 빌리자면 바로 이와 같은 매우 지리적인 요소들, 즉 “the spacious landscape and the people of Nebraska ...” 같은 것이 캐서에게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인 소재(그의 말로 “가장 역동적인 출처” (the most vital source))가 되었다. 이와 같은 강한 공간 감각(sense of place), 인물감각(sense of people)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에서 우리는 지리와 문학, 문학과 지리학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보다 실존적인 차원으로 눈길을 돌려서 위에 말한 지리적 요소들이 어느 정도로 캐서 작품 속에 침투해 있는가? 하는 점을 local color 또는 local colorism, 아니면 한마디로 “지방색”이란 개념과 연루시켜 헤아려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경관을 음미해봄으로써 문학과 지리학 양자간의 관계가 얼마나 짙은 것인지, 그리고 그 속성이 어떤 것이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론으로 진입하기 전에 잠시 이 글의 소재인 두 소설의 줄거리를 짚고 넘어가자.

이야기 줄거리

[1] 오 개척자여!(*O PIONEERS!*)

19세기가 20세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중부지역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서부 개척민 1세의 힘겨운 생활상, 어려운 자연환경에다 언어/문화장벽을 안고 황무

지를 개간해야하는 자신과의 투쟁을 그린 모험담(saga)이다.

여주인공 알렉산드라 베르그송(Alexandra Bergson)은 21살 때 아버지가 일궈놓은 네브라스카 주의 소유 레드 클라우드 인근의 농지(homestead)와 땅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물려받는다. 15년에 걸친 노력과 지혜로운 운영방법으로 알렉산드라의 소유지와 재산은 크게 늘어난다. 자립정신이 강한 여농부이건만 그녀는 유년시절의 친구 카알 린드스트럼(Carl Lindstrum)을 못 잊는다. 틈에 이저 때 자신의 꿈을 펴고자 고향을 떠난 그는 타지를 배회하다가 실패하고 레드 클라우드로 돌아온다. 알렉산드라는 욕망과 번민이 뒤섞인 상태의 카알을 따듯이 맞아 결혼을 청한다. 둘은 희망을 안고 새 출발을 한다.

[2] 앤토니아 (MY ANTONIA)

십대 때 고아가 된 짐 벌든(Jim Burden)은 네브라스카의 변방소읍 블랙 호크(Black Hawk)에서 살고있는 조부모에게로 간다. 그러나 세대가 다르고 엄격한 할아버지와 호홉이 안 맞아서 외로움에 빠진다. 마침 그때 보헤미안계 이민 가족의 딸 앤토니아(Antonia)를 만나 가까운 사이가 된다. 순진명랑한 그녀에게서 짐은 새 희망을 찾는다. 그런데 조부모는 손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그녀와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

성인이 되어 둘은 각자 다른 생활을 한다. 짐은 교육을 통해 세련된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블랙 호크를 떠나고 앤토니아는 그곳에 남아서 가족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견딘다. 어릴 적 꿈은 현실이 아님을 알고. 그러나 짐은 한때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사랑으로 감동을 준 앤토니아를 잊지 못한다.

3. 캐서 작품 속의 경관

위에서 산천초목, 땅, 바다 등의 공간 개념이 지리학의 기본 요소라고 언급하였거니와, 이런 것은 또 많은 문학작품(주로 소설)의 부수적 구성요인, 즉

background scene / landscape를 가시화 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작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 같은 배경/경관 묘사법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무드를 조성하거나 사건을 전개 해왔다 (Moore/Golledge, 1976, pp. 273-85 참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우리는 캐서의 대표작인 『오, 개척자여!』와 『앤토니아』 두 소설을 중점적으로 조명해보자.

핏츠버그市的 맥클로어 誌社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 캐서는 틈틈이, 열심히 써서 출간한 『오, 개척자여!』라는 1913년 중편 소설은 저자의 창의력이 원하던 방향으로 분출된 작품이다. 즉 감수성이 예민하던 8-9살 소녀시절 캐서는 레드 클라우드 소도시로 이사가서 처음 만난 유럽이민(주로 스웨덴, 체코계 보헤미안들) 제1세대의 개척생활과, 후에 자기와는 친구가 되는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알뜰한 추억을 자기 창작의 주 소재로 쓸 수 있게되기를 갈망했었다. 고향을 영원히 뒤로하고 이주해온 낯설고 모진 환경(사실 대평원은 강우량이 적은 지역이며, 이름 그대로 광활한 평지여서 계절 따라 특히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은 가혹하리만큼 거세다)속에서 고생하던 그들의 각박한 사정, 문화적 충격과 언어장벽으로 인한喜怒哀樂, 그때(19세기 말엽)만해도 농업 등 모든 일을 짐승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던 시대적 여건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개척자들의 생활상,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라지고 새로 태어나 대를 잇는 제2세대의 성장과정 등은 캐서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캐서가 도시생활을 하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애잔하게 기억되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앞서 말한 드넓은 네브라스카의 자연이었다. 그러므로 저자가 『오, 개척자여!』의 첫 章을 “황야”(The Wild Land)라고 이름하고 뒤따르는 부분을 인접한 “토지”(Neighboring Fields), “겨울날의 기억”(Winter Memories), “백색의 멀베리 나무”(The White Mulberry Tree) 등 땅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제목으로 줄줄이 이은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림 없이도 땅과 인간의 체취가 영키는 경관을 보는 듯하다. 실제로 책을 펴보면 첫 대목에서 이러한 인문지리적 전경(geo-cultural landscape)이 더 뚜렷하게 전개되는

데, 이 부분을 여기에서 원문을 따라 가시화 해보자. 세팅은 쌀쌀한 어느 겨울날 오후, 〈하노버〉(Hanover)라는 소읍이다.

30년 전 1월 어느 날 바람결이 센 네브라스카 탁상지에 자리잡은 하노버 소읍은 바람에 휘말려 날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얇은 눈송이로 이루어진 안개가 회색 하늘 밑 회색 초원에 웅기종기 모여있는 나지막한 담갈색 건물들 주위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뚝의 메인 스트리트는 흠이 깊게 패인 길인데, 지금은 푹푹 얼어붙은 상태로 읍내 북쪽 끝 작달막한 붉은 색 驛舍와 곡물창고가 서있는 데서부터 남쪽 끝의 목재소와 horse pond (말에게 물도 먹이고 씻겨주는 연못)까지 뻗어 있었다. 길 양쪽으로는 목조건물들이 고르지 못하게 일렬횡대로 서있는데 그 중 몇은 잡화상, 둘은 은행, 그밖에 drugstore, 사료가게, 선술집, 그리고 우체국이 하나씩이었다. 널빤지로 된 歩道는 짓밟힌 눈 때문에 어슴푸레한 색이었으며 오후 두 시가 되니 식사를 하고 돌아온 점원들은 얼어붙은 창문 안쪽에서 편안한 모습이었다.

“One January day, thirty years ago, the little town of Hanover, anchored on a windy Nebraska tableland, was trying not to be blown away. A mist of fine snowflakes was curling and eddying about the cluster of low drab buildings huddled on the gray prairie, under a gray sky..... The main street was a deeply rutted road, now frozen hard, which ran from the squat red railway station and the grain “elevator” at the north end of the town to the lumberyard and the horse pond at the south end. On either side of this road straggled two uneven rows of wooden buildings: the general merchandise stores, the two banks, the drugstore, the feed store, the saloon, the post office. The board sidewalks were gray with trampled snow, but at two o’clock in the afternoon the storekeepers, having come back from dinner, were keeping well behind their frosty windows” in Cather, 1990 ed., 17).

픽션이지만 서두에 조명되는 하노버는 19세기 후반, 대륙횡단 철도가 건설되면서 나타난 미국중서부의 전형적인 service town이다. 기관차에 물을 넣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들어와 잠시 정거한대서 일명 ‘whistle stop’ 라고도 하는데, 이런 소읍은 주로 인근지역에 흩어져있는 농가나 가축업자들을 위해 생긴 것이다. 인용문에서 언급되는 곡물창고(grain elevator 혹은 silo)는 으레 화물칸과 접속되도록 철길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로서 소위 whistle town의 특색이며 또한 그 일대가 곡창지대임을 말해준다. Town이라야 이른바 main street 양쪽 길가에 서있는 잡화상 두 세 개, 작은 은행 둘, 약국을 겸하는 상점, 술집(saloon), 우체국이 각각 하나씩인데, 모두 그저 그런 단조로운 목조건물이다. 언급되지는 않았어도 아마 타운 언저리 어디에 개신교 교회로 쓰이는 흰색 목조건물이 또 하나 있으리라. 이렇게 묘사되는 서부 전방지역 소읍의 모습은 흡사 “농촌지리입문”으로 착각되리만큼 지리학적인데, 정작 이런 경관묘사를 이 분야의 전문가인 지리학자에게 맡긴다면 사진을 보듯 실감나는 문학적이며 가시적인 표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 개척자여!』의 경우 이러한 문화-지리적 묘사는 마치 베토벤 작곡 <Pastorale>의 변주곡처럼 작품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

앞에 인용한 하노버 소읍의 단조로운 거리는 여주인공 알렉산드라가 동네친구인 카알의 도움을 청하여 전선주에 올라가 앉은 다섯 살 백이 남동생 에밀(Emil)의 애완 고양이를 끌어내리는 장면이다. 이 간단한 사건이 해결되자 셋은 마차를 몰아 농가(homestead)로 돌아간다. 해가 기울면서 차가워지는 늦은 오후, 읍을 벗어나자 곧 위압적인 대초원이 전개된다. 다시 저자가 무비카메라를 들고 조명을 하는 듯한 장면을 소개한다. 축고 황량한 이미지이다.

그들 뒤의 소읍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키 큰 대초원(prairie)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고 대신 얼어붙은 황량한 자연이 그들을 품었다. 몇 안 되는 자작농장은 그나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여기저기 세워진 풍차는 하늘을 향해 수척한 모습이고 우묵한 곳에 흙벽돌 집 하나가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The little town behind them had vanished as if it had never been, had fallen behind the swell of the prairie, and

the stern frozen country received them into its bosom. The homesteads were few and far apart; here and there a windmill gaunt against the sky, a sod house crouching in a hollow" in Ibid., p. 22).

운송수단의 일대 혁명을 일으킨 대륙횡단철도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포함한 인간의 취락은 대평원에서는 아직도 (19세기 후반 기준) 그 물리적인 위상이 대단치 못했다 ("the little town ... had vanished"). 그리고 18세기 서부개척에 박차를 가한 Homestead Act(1862년 제정된 자가농소유법)에 힘입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이주해온 개척민1세는 단칸짜리 sod house에서 두더쥐보다 나은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위 인용문 속의 landscape는 한마디로 대자연 앞에서 보잘것없이 왜소해 보이는 인간상이다. 기교 면에서 볼 때, 첫 인용문에 나오는 "drab buildings"나 "gray sky," 그리고 바로 위의 "stern frozen country"등의 문구들은 스웨덴 이민1세로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여주인공의 아버지 존 베르그송(John Bergson)의 사망을 예고하며 몇 안 되는 homestead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있다 함은 대초원의 규모를 암시하고, 이 때문에 누구를 만나보려면 말이나 마차를 타고 한참 달려가야만 하는 서부개척민들의 외로움을 말해준다. 그도 그럴 것이, Homestead Act에 따라 한 가구에 할당되는 농지가 최소 160에이커이었으니 이것을 160 x 1500평으로 환산하면 가구 당 소유가 약 24만평에 이른다. 이 너른 땅에 흙벽돌 움막집이 한 채, 쟁기용 헛간, 마구간, 사일로 및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windmill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물을 제외하면 모두 농지이다. 그래서 『오, 개척자여!』와 다를 바 없는 배경과, 역시 유럽이민 1세의 개척사를 주제로 삼아 전개되는 『앤토니아』(1918년 작)에서도 네브라스카의 초원은 짐 버든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짐은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블랙 호크 읍에 사는 할아버지/할머니한테로 간다. 마차를 타고 조부모님을 찾아가는 그의 시야에 네브라스카의 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보이는 건 땅 뿐이었다. 이진 전혀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구성하는 원자재였다. 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

끝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관할권을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태껏 나는 한번도 낮익은 산등성이가 없으면 하늘을 바라다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젠 완전히 하늘의 지붕이다. 온통. 땅과 하늘 사이에 끼인 나는 지워지고 말소된 기분이었다.

“There was nothing but land: not a country at all, but the material out of which countries are made. No, there was nothing but land I had the feeling that the world was left behind, that we had got over the edge of it, and were outside man’s jurisdiction. I had never before looked up at the sky when there was not a familiar mountain ridge against it. But this was the complete dome of heaven, all there was of it..... Between that earth and that sky I felt erased, blotted out” in Cather, 1995 ed., 7-8).

대평원의 초원 -- 역시 『오-- 개척자여!』의 첫 장면처럼, 그 광활한 규모에 위압되어버리는 인간상이다 (“I felt erased, blotted out”). 그러나 해바라기로 아름답게 황갈색을 띠는 이 가을철의 자연경관은 Jim에게 평생 못 잊을 인상을 남긴다. 레드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블랙 호크도 보헤미아, 러시아, 독일, 노르웨이계 등등의 이민들이 먼저 정착한 본고장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개척자 마을 frontier town이다. 애초 얼마동안 조부모의 진한 사랑을 반항으로 대응하던 짐은 점차 이곳 경관에 매료되면서 거시적인 차원의 첫 인상과는 달리 여기저기서 각자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다양한 동식물을 알아보게 된다. 여뀌, 개오동나무, 느릅나무, 메뚜기, 말모트, 땅거북, 방울뱀, 나뭇가지에 틀어놓은 매 둥지, 올빼미 등. 그리고 언제라도 포니등에 올라 거침없이 초원을 달릴 수 있는 자유로 인해 짐은 환희를 느낀다. “발 밑으로 느껴지는 흙은 따뜻했다. 흙 한 줌을 손가락 사이로 바순즉 역시 따뜻했다. 이상야릇한 작은 붉은 색 벌레들이 分隊를 이루어 천천히 내 주위를 맴돈다. 놈들의 등은 반질반질한 주홍색에 흑점이 있다. 난 완전히 부동자세를 취했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리라고 기대하질 않았다. 난 태양 아래 누어있는 그 어떤 존재로서 호박들처럼 그걸 느꼈으며 그 외에 다른 것은 더 원하지 않았다. 난 완전히 행복했

다 (The earth was warm under me, and warm as I crumbled it through my fingers. Queer little red bugs came out and moved in slow squadrons around me. Their backs were polished vermilion, with black spots. I kept as still as I could. Nothing happened. I did not expect anything to happen. I was something that lay under the sun and felt it, like the pumpkins, and I did not want anything more. I was entirely happy).”

이렇듯 멋진 전원적 환경 속에서 짐은 어느 날 보헤미아 이민가정의 딸 앤토니아를 만난다. 아직은 서툰 영어에 모든 것이 새로운 앤토니아의 눈은 등글고, 윤기 뿜 두 볼에 갈색 피부와 곱슬머리는 다소 야한 개성 미 마저 풍긴다 (Ibid., 17). 짐은 그녀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겨울이면 썰매도 같이 타고 하면서 앤토니아와 정다운 친구가 된다 (Ibid., 42). 이들의 젊음과 환경 탓일까? 그들이 사는 변방의 소읍 블랙 호크는 자못 이상향처럼 부각된다.

우리가 이사를 와서 살게 된 새로운 세계 블랙 호크는 식물들이 잘 가꾸어진 단정한 대초원 지역의 읍으로, 집마다 하얀색 울타리와 반듯한 잔디를 깎 마당이 있었다. 길들은 폭이 넓었고 널빤지를 깎 步道를 따라 보기 좋은 작은 나무들이 쪽 서있었다. 읍 중앙에는 새 벽돌건물들이 두 줄로 들어서서 하나는 학교로, 또 하나는 법원청사로 사용되고 나머지 넷은 흰 색 교회들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읍 전체가 보이고 이층에 올라 가면 먼 남쪽으로 2 마일이나 되는 지점에 있는 강의 절벽도 보였다.

“Black Hawk, the new world in which we came to live, was a clean, well-planted little prairie town, with white fences and good green yards about the dwellings, wide, dusty streets, and shapely little trees growing along the wooden sidewalks. In the centre of the town there were two rows of new brick “store” buildings, a brick school-house, the court house, and four white churches. Our own house looked down over the town, and from our upstairs windows we could see

the winding line of the river bluffs, two miles south of us" in
Ibid., 94).

앞서 본 『오, 개척자여!』의 소읍 하노버가 “windy Nebraska tableland, low drab buildings, board sidewalks ... gray with trampled snow” 등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문구(특히 drab, gray와 같은 형용사)로 묘사되어 매우 쓸쓸스런 경관을 나타냈다면, 블랙 호크는 반대로 아름답고 (good green yards, the winding line of the river bluffs), 잘 정돈된 (a clean, well-planted little prairie town) 변방지역의 작은 도시이다. 이처럼 상이한 무드는 아마도 전자의 경우 벽찬 희망보다는 맨 손으로 앞날을 헤쳐나가야 하는 개척자의 불안 마음 때문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단조롭던 할아버지의 농가와는 상대적으로 크고 변화가 있는 고을로 바뀌는 환경의 변화를 반기는 『엔토니아』의 주인공의 심리상태가 그 이유일 것이다. 어쨌든 두 소설에서 등장인물을 에워싼 이야기는 자연전경landscape과 계속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전개된다.

4. 땅의 의미

캐서의 작품세계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에 밀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매우 지리적인 배경이 페이지마다 마치 인문지리교과서인양 소설내용을 장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地와 文이 아주 손에 잡힐 듯한 국부적인 차원에서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local colorism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잠깐 다시 『오, 개척자여!』로 돌아가 보면, 여주인공 알렉산드라의 동향친구인 카알이 미술가가 되기 위해 레드 클라우드를 떠나 오랫동안 뉴욕 등 도시생활을 하다가 뜻을 펴지 못하고 귀향해서 그녀와 결혼을 하는데 결국에는 중西部 대초원의 땅이 둘을 받아 준다. 그것은 알렉산드라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농토로, 두 남동생은 농사가 지겨워 떠나버리고 그녀 혼자 힘으로 일구고 부풀려서 알찬 소유지로 둔갑시킨 것이다. 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자기의 농지를 보며 배우자가 될 카알에게 이렇게 인생철학을 얘기한다. “땅이란 미래에 속해 있는 것이지. 내 생각으론 그

래.... 사람은 왔다 가지만 땅은 언제나 여기에 있거든. 땅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거지 — 잠시동안 말이야 (“The land belongs to the future, Carl; that’s the way it seems to me..... We come and go, but the land is always here. And the people who love it and understand it are the people who own it — for a little while” in Cather, 1990 ed., 196). 펄 벅(Pearl Buck)의 대작 『대지』 The Good Earth, 이광수의 “흙”의 철학, 이 효석의 메밀밭을 떠올리는 말이며, 땅을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이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다. 땅에 희망이 잠재함을 본 캐서는 땅을 디디고, 땅을 가꾸어 곡식을 길러서 먹고사는 파이어니어들의 현실, 또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표출하는 다양한 현상(사랑, 출생, 사망 등)을 줄곧 시네마스크롭 같은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그렸다. 포어스터(Foerster/Falk, 1960, p. 1017)에 의하면, “캐서는 고생을 체험한 세대에 대하여 즐겨 사색을 했고 인생을 그 어떤 고귀한 위대함의 개념을 가지고 관조했다 (she loved to reflect on the generation that had known hardships and looked upon life with a certain noble largeness).” 그래서 작품에 나오는 인간행위 뒤에는 언제나 토지, 태양, 금빛을 발하는 수확기의 곡식, 옛길 따위의 경치가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McFarland, 1972, 21; Cather, 1990, 147-156, 238). 이점은 또한 세기가 바뀌면서 미국사회에 퍼지게된 기계문명과 물질주의를 대단히 걱정스럽게 바라다본 캐서의 시각을 암시하기도 한다 (McFarland, 14-15).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미합중국의 총 인구가 4천만이 채 못되었고 그 중에서 도시인구는 약 25% (2천8백만)이었다. 70년 후(1950년)에는 이 수치가 1억5천만으로 급증하고, 도시인구는 무려 64%로 뛰어오른다. 5배에 가까운 인구증가에 정비례하는 도시화현상이 의미하는 병폐가 무엇이었을까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인종, 문화, 종교와 사상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외국인들이 수백 수천만 수준으로 밀려들어온 상황을 상상해 보라.

캐서의 작품은 땅을 바탕으로 하는 글이어서 언제나 흙 냄새가 짙고 또한 특정지역의 문화-지리적 감각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Ibid., 84-85). 19세기 미국 서부의 대평원, 이렇다할 둔덕 없이 완만히 뻗어나가는 전원적 풍경,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 (prairie)과 동식물들, 계절과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 변하는 자연

경관의 색깔, 대체로 건조한 가운데 가변성 기후로 인해 가끔씩 생기는 자연의 가혹한 측면, 그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homestead를 일구며 1세 이민으로서 신세계에 적응해 가는 인간상 등은 확실히 미국의 서부, 특히 대평원의 중심부인 네브라스카가 아니면 볼 수 없는 local color이다. 아울러 우리는 땅과 사람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고장 특유의 geo-cultural landscape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같은 변방이라도 동부에는 수풀이 많아 개척자들이 나무를 건축재로 이용해서 log house를 지은 반면에 온통 초원뿐인 대평원에서는 sod house가 거주형태의 주를 이루었다.

부수적인 얘기로, local color라는 문학적 특성은 물론 캐서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녀와 거의 동시대의 작가로서 캘리포니아(California) 광부들의 거친 생활상을 그린 브렛 하르트(Bret Harte), 뉴 올리언스(New Orleans)의 크레올인들을 묘사한 조지 W. 케이블(George W. Cable), 버지니아(Virginia)의 옛날 대농 저택들과 연루된 로맨스romance를 조명한 토마스 넬슨 페이지(Thomas Nelson Page), 조지아(Georgia)지역 흑인민속문화를 좋아했던 Joel Chandler Harris 등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local colorist들도 많다(Sister Marie Theresa, et al., 1961). 이들에게는 배경(setting)이 등장인물(character) 못지않게 중요해서 place, people, 아울러 그들의 local dialect에 관한 내용이 작품에 많이 묘사되어있다.

공상과학소설을 제외한 많은 문학작품에는 이와 같은 인문-지리적 요소, 즉 local colorism이 내포되어 있다. 미시시피(Mississippi)강 유역 특유의 지리적 여건과 사회상을 소재로 하는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작품들이 그렇고 히스(heath)로 뒤덮인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의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도 그렇다. 『오, 개척자여!』와 『앤토니아』에서 묘사되는 두 소도시 레드 클라우드와 블랙 호크의 거리모습이나 건물, 가옥 및 기타 자연물들이 그 고장 사람들의 일상적인 움직임/말소리/옷매무새 등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되는 다양한 장면을 읽노라면 피에터 브루겔(Pieter Bruegel)의 16세기 플란데르 마을풍경, 조지 두리에(George Durrie)의 그림(예: "Sleighs Arriving at the Inn"), 또 그랜마 모세즈(Grandma Moses)의 아기자기한 뉴 잉글랜드(New England) 시골 경치나 풍습("Birthday Party Barbecue,"

“Sugaring Off” 등)을 보는 듯하다. 그렇듯 캐서가 묘사하는 자연경관은 이들 민속화가의 그림만큼이나 짙은 locus의 특색을 느끼게 한다.

캐서나 트웨인같은 작가들은 특히 19세기 중엽 “아메리카”의 문화와 지리적 배경을 이용하여 역작을 내었고 그리하여 자신들이 몸소 보고 느낀 당시 특유의 지방색을 표출시킨 것은 문학이나 인문지리 학도를 매료하기에 충분하다.

참 고 문 헌

- Bell, Marianne. *Frontier Family Life*. Barnes & Noble Books, 1998.
- Cather, Willa. *My Antonia*. Houghton: Mifflin Company, 1995, first published 1918.
- Cather, Willa. *O Pioneers!* Reader's Digest Association, Inc., 1990, first published 1913.
- Dohrs, Fred E. and Lawrence M. Sommers, eds. *Introduction to Geography: Selected Readings*. Thomas Y. Crowell Company, 1969.
- Foerster, Norman and Robert Falk. *Poetry and Prose*. Houghton: Mifflin Company, 1960.
- Glubok, Shirley. *The Art of America from Jackson to Lincoln*. McMillan Publishing Company, Inc., 1973.
- Lee, Eun Sook. “문학지리학서설.” 『문화역사지리』 제4호, 이찬 박사 고회 기념 특집호, 1992
- Leighly, John, ed.. *Land and Life: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of Carl Ortwin Sau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Lowenthal, David and Martyn J. Bowden, eds.. *Geographies of the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McFarland, Dorothy T. *Willa Cather*. Frederick Unger Publishing Company, 1972.
- Meinig, D.W., ed.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Shin Myongsup, “Geographical Knowledge in Three Southwestern Novels” in Gary T. Moore and Reginald G. Gollledge, eds. *Environmental Knowing: Theories, Research and Methods*. Dowden, Hutchinson & Ross, Inc., 1976.
- Theresa, Sister Marie et al. *In American Literature*. Harcourt, Brace

& World, 1961.

Tuan, Yi Fu. "Literature and Geography" in David Ley and Marwyn S. Samuels, eds. *Humanistic Geography: Prospects and Problems*. Maaroufa Press, 1978.

Wooten, Sara McIntosh. *Willa Cather, Writer of the Prairie*. Enslow Publishers, Inc., 1998.

Abstract

Cultural Landscape in the Works of Willa Cather

Myungshop Shin

O Pioneers! and My Antonia are two among other novels written by Willa Cather highlighting the struggles of immigrants from Europe who tried to carve out a new life in the American frontier during the 19th century.

With a special interest in the first-generation Bohemians, Cather depicts the interplay of poor sod-house settlers who had to overcome linguistic/crosscultural barriers while creating a modest economic foundation in the West and the geographic challenges which the region presented to homesteaders. The sheer size of the prairie country, the distance between farms and towns, and the dearth of machinery for cultivation coupled with the often hostile elements of nature made life really hard for the pioneers. These harsh conditions necessitated long, laborious days on the part of farmers in close contact with the land they worked and all of its physical elements --- soil, water, weather, flora and fauna, look of the land, its sights, sounds, and odors, etc. One reading Cather's works soon realizes that human geography is as much a part of her writings as plots and themes. The cultural landscape thus unfolding in her novels merits scholastic attention as one finds geography being so closely incorporated into her literature set against the beauty and mischief of nature in the Great Plains.

Key Words : local color, sense of place, sights and sounds, prairie country, Willa Cather.

주제어 : 지방색, 공간감각, 시야와 청각, 초원시대, 윌라 캐서